

입동 주민들은 괴로운 '프로야구 시즌'

(광주 북구)

소음·불법주차 극심... 퇴근길 5분거리 30분 소요

오늘부터 시범경기... 주민들 집단 소송 본격 진행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을 앞두고 설레는 야구팬들과 달리 정작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주변에 사는 광주시 북구 입동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벌써부터 불편이 예상되지만 정작 광주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소음과 관련해 지난해 입동의 한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수백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7일 광주시와 북구, 입동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16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개막한다. 시범경기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며, 다음달 5일부터는 정기시즌이 예정돼 있다.

북구는 8일부터 경기 시작 전·후 1시간씩 2시간 동안 견인차 등을 동원해 챔피언스필드 주변 불법 주차차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장 주변 상습 교통정체로 해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동지역 주민들은 보여주기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챔피언스필드 주변은 본격적인 야구 시즌만 되면 발생하는 차량정체로 도로가 마비되는 실정이다. 광천1교에서 야구장 방면, 광운교에서 야구장 방면 등 주변 주요

도로가 갖길에 1~2층으로 주차하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례로 평소 2~3분이 걸리는 일신방직 정문에서 챔피언스필드 4사거리 구간의 경우 야간 경기가 있는 날이면 20~30분씩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구 불법주차차 단속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견인차량도 못 움직일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경찰청이 야구 시즌 주도로 일부를 한시적으로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김동규(33)씨는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야구장을 신축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며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불편을 참아야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9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 입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1차) 주민 732명은 지난해 9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공해, 교통난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광주시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4개동 340세대 중 72%인 246세대가 참여했다. 500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올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오민곤 변호사는 "재판부와 상의해 감정기관을 선정할 뒤 5~6월께 주간·야간·주말 경기와 관중석이 만석일 때 등 4가지 사례에 대한 소음과 교통량 등 증거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버스타류장 봄맞이 꽃단장 광주시 북구 입동주민센터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7일 입동 무등경기장 남쪽 버스타류장에서 봄맞이 청소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병원, 뇌조직 수집·보관 '뇌은행' 연내 운영

뇌연구원 지원사업 선정...치매 등 뇌질환 연구 기대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립)이 한국뇌연구원(연구원 김기현)에 선정돼 뇌질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가 뇌연구 거점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한국뇌은행은 권역별 뇌은행을 선정·육성해 뇌조직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도 지정병원 뇌은행 지원사업'에 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두 가지 부문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3곳은 일반형 사업에, 서울대병원은 선도형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치매 등 퇴행성 질환 환자의 사망 후 뇌조직을 기증받아 보관·관리하고,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하는 뇌은행을 연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운영위원회와 신경병리팀·병리학팀·임상진료팀·행정팀 등 4개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국내 뇌질환 연구는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와 다르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절실할 필요성이 있다.

전남대병원 뇌은행장인 신경과 김병채 교수는 "뇌기증은 뇌질환의 이해 증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라며 "퇴행성 뇌질환 또는 원인불명 뇌질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 작년 증가 도서 9만5000권 전국 1위

지역대학생 책 대여 전국평균 이하

지난해 대학생 1명이 대출한 도서가 평균 7.4권으로 집계됐다. 전남대를 제외한 광주·전남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전남대 도서관의 지난해 증가도서는 9만5000권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다.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펴낸 '2015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395곳에 재학 중인 학생 1명당 평균 대출도서는 7.4권으로 집계됐다.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명당 대출도서는 지난 2011년(10.3권) 이후 2012년 9.6권, 2013년 8.7권, 2014년 7.8권 등으로 감소했다. 4년제 대학 도서관에서는 1명당 평균 8.6권을 빌렸고 전문대 도서관에서는 2.3권을 빌렸다.

지역 대학의 경우 전남대 재학생의 1명당 대출도서가 11.6권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보다 많지만 전년(12권)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전남대는 지난해 증가도서가 9만5000권으로 국내 대학 도서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해 재학생 1명당 대출도서가 5.0권으로 전년(3.5권)보다 늘었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외 재학생 1명당 평균 대출도서는 ▲광주대 1.6권 ▲동신대 3.1권 ▲목포대 3.6권 ▲순천대 6.7권 ▲호남대 1.4권 등으로 집계됐다.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 중 1인당 대출도서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로, 평균 24권을 빌렸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해질 18:34
 일출 06:06 일몰 17:43

해안지역 강풍주의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9/12	보성	9/11
목포	8/10	순천	11/13
여수	10/12	영광	7/11
나주	8/12	진도	8/10
완도	9/12	전주	7/10
구례	10/13	군산	6/10
강진	9/11	남원	8/11
해남	8/12	속산도	7/7
장성	8/11		

비다 날씨

시/도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1.0~2.0
	면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북동	1.5~3.0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5~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1:16	06:46	13:55	19:18
	08:54	02:19	21:02	14:55

주간 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	☀	☀	☀	☀	☀	☀
3/10	-1/6	-1/6	-1/11	2/13	4/14	4/15

광주·전남 벚꽃 4월 4일 절정

24~31일 개화 시작...개나리는 이달말 만개

올해는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을 4~5일가량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봄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의 벚꽃도 평년(1981~2010년)보다 4~5일 빠르게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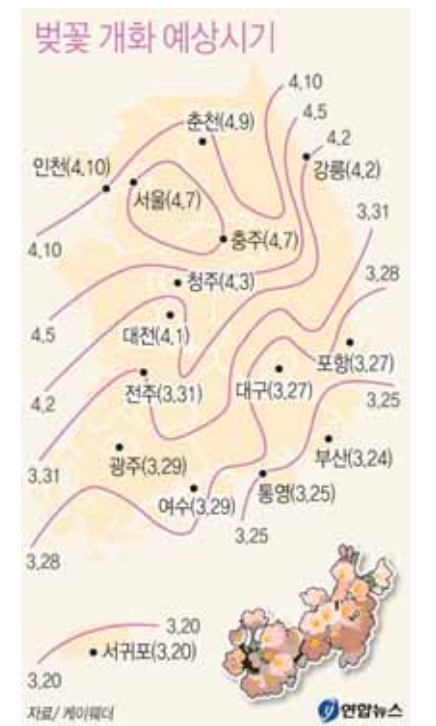
올해 벚꽃은 오는 20일 제주 서귀포에서 처음으로 개화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은 오는 24~31일 사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여수는 오는 29일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전주는 4월5일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여수는 4월4~5일경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개화 시기는 2~3월 기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광주의 경우 2월 강수량이 평년(47.9mm)보다 0.27mm 적었지만 기온이 평년(2.5도)보다 0.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남부지방의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개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봄의 전령인 개나리는 광주와 여수에서 평년보다 2일 빠른 3월23일 개화해 3월 말경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